



계성산우회보

제 44 호

- 발 행 인 : 김시우
- 편집국장 : 정인재
- 등반대장 : 류청웅
- 편집위원 : 김진걸
- 총 무 : 신대수

2007년 8월 27일(월)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9월 정기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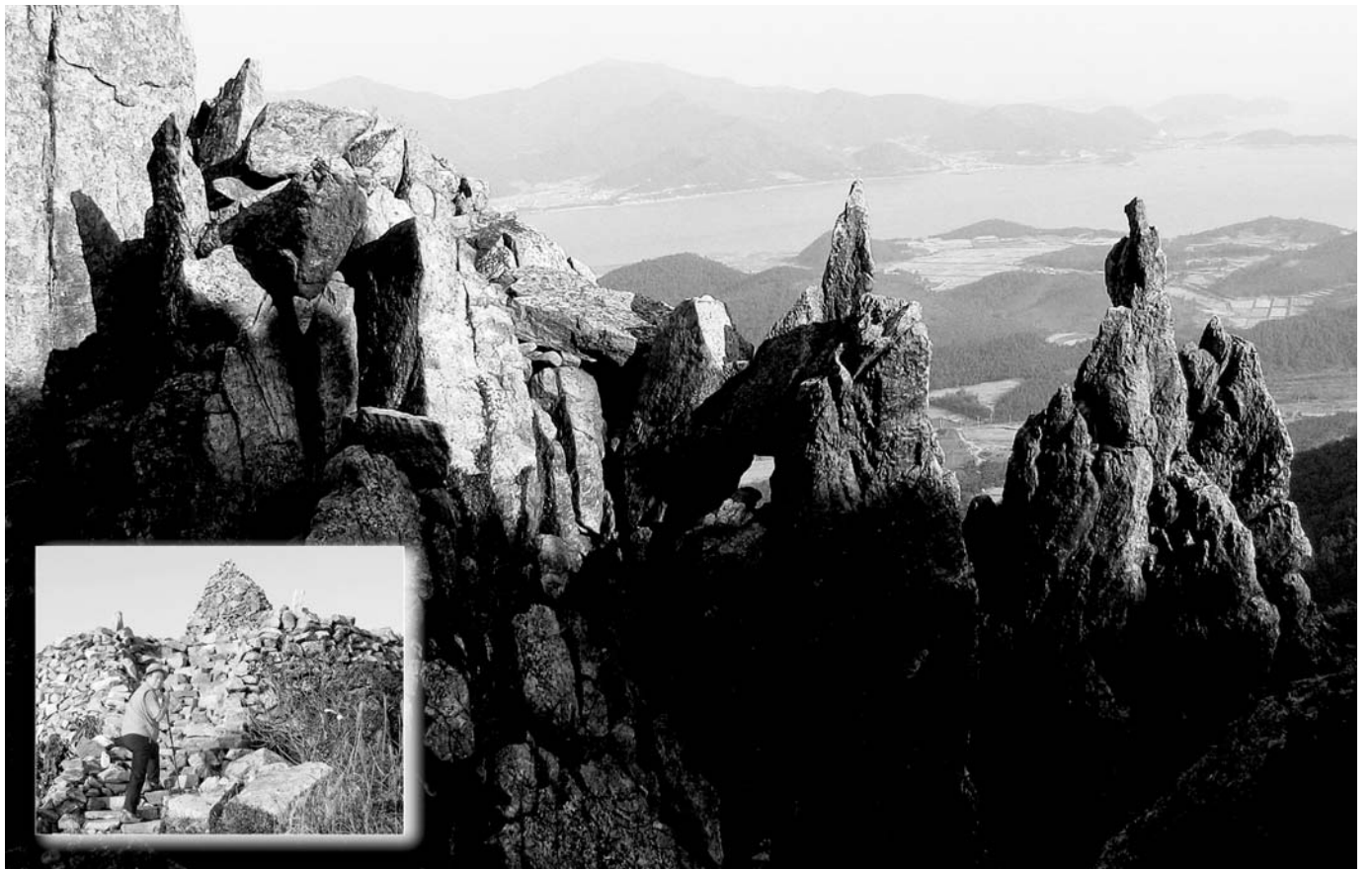
전남 해남 달마산(489m)에서

달마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과 북평면에 걸쳐있는 산으로서 위치로 보서는 북동방향에 두륜산, 남남서 방향에 땅끝(토말)과 송호리 해수욕장, 북쪽으로는 해남읍이 있다.

산행기점인 미항사는 달마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며 달마산 서쪽 바로 밑에 위치하고 달마산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남도의 금강산 답게 공룡의 등줄기처럼 울퉁불퉁한 암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능선은 단조로운 등산과는 달리 멀리 해안경관과 다도해를 보는 즐거움이 함께 해 지루함을 느낄 수 없다.

미항사에서 문바위를 거쳐 능선 바위 위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라! 와~ 입이 벌어진다!! 땅과 바다의 모습이 어우러져 이 멋진 경관 두고두고 기억되리라. 이제 까지 오른 산들과는 전혀 판이한 남도의 풍경을 연출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탄복할 것이다. 제각각의 특색있는 모습을 뽐내는 암봉들이야 말할 나위가 없고 주능선 양쪽의 좌우인 동쪽과 서쪽이 확트이고 양쪽 모두 다도해의 바다가 펼쳐진다.

한걸음을 떼어놓기가 아까울 정도로 계속되는 경관의 아름다움은 땅끝을 찾는 객들의 접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다. 능선을 따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다 보면 머지않아 돌탑이 보이며 “불췌봉”이라고 적힌 정상석이 반긴다. 또한 봉화대는 임란때의 통신수단으로서 역사적인 면면을 관찰할 수 있어 왔는 보람을 더해준다. 좌측은 진도 우측은 완도를 비롯해 다도해의 전부가 볼 수 있다. 북쪽으로는 달마산 능선의 달림을 양손을 벌려 받기며 두륜산이 막고 서 있고, 또 한



▲ 달마산 정상. 거대한 수석을 세워놓은듯 수려한 기암괴석들.(작은 사진은 류청웅(48회) 등반대장)

쪽 끝인 남쪽 능선은 아쉬움을 감추듯 서서히 바다로 몸을 담그며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산 정상은 기암괴석이 들쭉날쭉 장식하고 있어 거대한 수석을 세워놓은 듯 수려하기 그지없다. 특히 보지못한 날카로운

기암괴석의 바위능선은 오늘 산행의 빌미일 것이다. 금일의 산행은 약 6km로 4시간여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암릉, 다도해 조망 등 산행의 온갖 재미를 다 볼 수 있다.

하산하여 땅끝마을 관광도 할예정이니 모처럼 남도의 산행에 많은 동문들의 참

석 바랍니다. 산행코스는 다음과 같다.

▷미항사 - 문바위 - 불췌봉, 봉화대(491m) - 관음봉 - 이진리(약6Km, 소요시간 : 4시간 10분여), 산행후 땅끝관광지 토말의 전망대(사자봉 정상)

글 · 류청웅(48회) · 등반대장)

<2007년분 기별 산우회비 납부안내>

산우회비는 각 기수별로 연간 10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산우회보 인쇄, 발송 및 산우회의 각종 행사시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아직 납부치 않았신 기수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 대구은행 247-07-000915-8 (예금주 : 신대수)

<9월 정기산행 안내>

- ▶일 시 : 2007년 9월 2일(日) 06:30 (시간 지켜 주세요.)
- ▶장 소 : 모교 정문 앞 ▶회 비 : 1만5천원(가족1만원)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과일, 간식류, 여분의 옷가지 외
- ▶문 의 : 신대수(70회) H.P : 011-251-9613



HOTEL AIRPORT

호텔에어포트

http://www.htlair.com

- 넓은 주차장, 품격있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기타행사
- 웨딩, 연회 예약문의 : 053)260-0306~7

대표 서 은 수 (55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국제공항 내) / TEL : (053) 260-0001

산행기

소풍같은 등산후의 하산주, 선후배간의 정겨운 시간

내연산은 포항시와 영덕군에 걸쳐 넓게 퍼져있는 산이나, 일반인에게는 그냥 청하 보경사계곡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리라만큼 계곡이 아름다운 산이다. 계곡길이 평탄한 편이면서도 올라가는 도중 연산폭포를 비롯한 아름다운 폭포들이 즐비하고 계곡의 수량이 풍부한 편이어서 예전부터 직장 아우회의 적지로 소문난 곳이다.

나도 신입사원 시절 이 계곡에 아우회를 왔다가 온종일 마신 술 때문에 귀갓길에 기어이 벌어진 직장 선후배간의 다툼을 어찌어찌 풀어 말리는데 성공하여, 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뜬, 나로서는 매우 행복한 추억이 담겨있는 골짜기이기도 하다.

제작년 겨울 다친 빗장뼈에 붙여둔 지지철편 때문에 배낭을 뗄 수 없게 된 후 동창회 산행에 자연 뜸하게 참석할 수 밖에 없었던 나에게 내연산 계곡을 대충 걷는등마는등하고 화진해수욕장에서 퍼질고 앉아 한잔 기울이면 된다는 식의 산우회 안내문은 오래 만나지 못하였던 선후배님들께 생사라도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 그럴듯한 기회로 비쳐어 참

으로 오랫동안 참가 신청을 하였다.

비가 왕창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짜 이런 일이 하고 참가 약속을 후회하면서 잠들었으나, 아침에 잠을 깨니 다행히도 빗줄기는 굵지 않아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학교로 향한다. 자주 뵈던 선후배님들께 반가이 인사드리고 두리번거리며 동기들을 찾아보니 십여명 친구들의 눈빛이 반짝거리고 있다. 오호! 계획순조!

내연산에 도착하여 힘차게 고가부르고 배낭 메고 보루도 당당히 계곡을 향하여 들어간다. 빗장뼈 골절사건 이후 어깨에 부담도 되고 다리 힘도 쇠하고 하여 늘 집사람이 지고 다니던 도시락 가방을 이번엔 내가 메었으니 어찌 보루가 당당하지 않을 손가. 하물며 내연산 계곡은 평지나 다름없는 평이한 산행길! 맨땅 행군에서는 내가 강자다. 육군 백골부대 군가라도 불러 볼까나.

문수산으로 향하는 갈림길에, 아니나 다를까, 항상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멋진 등산코스를 소개해 주고파 못사는 류대장님이 문수산-삼지봉(내연산)



▲ 화진해수욕장 전경.

코스를 안내하고 계신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 문수산, 내연산, 향로봉이 한없이 한없이 이어진 등산코스로 시간을 밥먹듯 잡아먹는 코스라는 걸 내가 모를소냐. 몸은 비록 쇠하였으나 머리는 아직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물며 백암산 신선골의 그 장엄한 경관을 무색케 하던 그 아픈 팔다리의 기억이 아직 다 잊혀지지 아니하였다. 눈 질끈 감고 계곡길을 계속가기로 한다. 초지일관. 백골정신!

앞으로 앞으로, 오늘 만은 평소와 달리 길을 재촉한다. 기어이 한시 차에 맞추어 바닷가 송림에서 신선이 되어보리라. 가볍게 연산폭포에 도달하여 폭포 및 판작한 바위 위에 도시락을 펴고, 사위를 둘러보니 동기들이 두셋밖에 없구나. 장한 놈들. 그에 죽음의 길로 들어섰구나. 어쨌건 남은 동기들을 수습하여, 요새 소주 심겁다고 집에서 가져온 과실주용 막소주 한잔 걸치고 시계를 보니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폭포 물소리를 뒤로 하고 설렁설렁 되돌아 걷는다.

비록 상상했던 화진해수욕장의 그 송림은 아니었으나, 집행부에서 어렵사리 마련해준 호젓한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자리 깔고, 수박화채 한 그릇에 더위를 식히고 맛나디 맛난 돼지고기 바베큐를 굽고, 옆집 대구대 학생들의 조개구이까지 보태도 아직 오지 못한 동기들이 많아 좀처럼 흥이 오르지 않는다.

전화는 불통이고, 동기들의 소식을 궁금해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비가 억수로 퍼붓는다. 이리저리 비를 피하며 우왕좌왕하며 있노라니, 아직 산중에 있을 친구들이 걱정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예정시간보다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내연산 주봉인 삼지봉으로 간 동문들이 기진맥진하여 도착하더니 인사라고 할 겨를도 없이 한여름 따끈따끈한 바베큐 불판에 머리를 쏙는다.

참으로 고단한 산행이었다고. 그들에게 저 바베큐는 어떤 맛일까. 순식간에 고기가동이 난다. 여필중부! 산행에 그리 능하지 않으면서도 신랑을 따라 능선길을 택했던 유진동기의 부인에게

마음속으로 부터의 박수를 보내본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으로 귀국하여 부모와 함께 참여한 이용철 동기의 아들 준엽군에게도.

어느새 한 대의 차는 떠나고 뒤늦게 남은 한 대의 차도 남은 여정을 시작한다. 모진 비바람을 맞았다고 노래 한자락할 흥이 없을소냐. 63회 이탁 동문의 사회로 한바탕 노래잔치가 벌어진다.

동문들의 혹은 흥겹고 혹은 구상진 노래가락이 차안을 채우니 선후배간의 어우러짐이 이리 정겨울 수가 없다. 신이 난 52회 김신웅 선배님이 소주 몇병을 내시고 나도 몇병을 보태본다. 우리들을 태운 차는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동문들의 노랫가락에 흔들흔들 흔들려 간다.

드디어 대구. 시가지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에게는 혼신의 힘을 다한 산행이었지만 나에게서는 한바탕 즐거운 소풍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소풍이건 등산이건 다음 등산회에도 참여하여 노유동락, 즐겁게 놀아보리라 다짐해본다.

글 · 박충호(61회)



▲ 보경사 앞에서 기념촬영.(가운데가 필자)

숫불왕갈비전문점



대표 정 옥 표 (56회)

성당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830-24번지

TEL : (053)652-9336

H.P : 011-802-2372



특별산행기

운무(雲霧)속의 설악 공룡능선

▲ 산이 나를 부른다.

마음 깊은 곳 잔잔한 호수가에 풀잎 이슬방울이 떨어져 큰 파문이 일어나 미지의 세계로 향한 열정이 솟구친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공룡능선 1박2일 일정의 장거리 산행을 마렷다. 긴 산행을 대비해 팔공산 주변의 과제사능선, 시봉, 동봉능선을 몇번 오르내리고 이웃 학교 운동장을 여러차례 돌며 몸을 추수했다.

산행준비는 신대수(70회) 산우회 총무가 봉정암은 전국 각지에서 온 수많은 참배객과 등산객들로 인하여 잠 청하기가 쉽지 않으니 '비박 준비물 꼭 하십시오'라는 조언도 있고해서 텐트, 침낭, 매트레스까지 완벽히 준비했다가 마음을 바꿔 기동성 있는 산행과 긴 산행에 따른 체력손실을 대비하여 비상식, 윈드자켓, 예비웃, 헤드랜턴, 비상약품 등 꼭 필요한 장비만 준비하여서 배낭도 처음 65ℓ에서 35ℓ로 줄이고 차곡차곡 폼나게 꾸렸다.

▲ 일탈을 꿈꾸며 내설악 계곡 비경속으로

이른 꼭두새벽부터 중식과 먹거리를 준비해주며 항시 몸조심하고 산행 잘하고 오라는 아내의 뺨에 뽀뽀하고 이른 새벽을 나선타.

정기산행때 자주뵈던 선후배님 그리고 가족분 모두 38명의 산꾼이 참석하시어 이들 속에 나 자신이 속해 있다는 일체감에 행복을 느낀다. 세속의 온갖 상념과 희뿌연 잿빛 도심을 뒤로하고 성서 I.C를 지나 중앙고속도로 위를 달린다. 무르익은 7월의 녹음과 청명한 하늘은 눈이 부실만큼 곱다.

차는 어느덧 용대리에 도착해 수많은 등산객과 휴가 피서객 그리고 봉정암 참배객과 뒤섞여 백담사행 순환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가는길 좌우 아래로 펼쳐지는 백담계곡의 굽이굽이 돌아 휘감는 깊디깊은 계곡과 빼어난 셀수없이 많은 비취색의 크고 작은 담과소, 기암과 어울린 태고 원시림의 아름다운 자태에 모두들 경탄해 마지 않는다.

백담사를 잠시 둘러보고 개울을 건너 깊고도 긴 내설악 계곡 산행길로 들어선다. 크나큰 소나무들이 우거진 숲속 그늘진 넓은 산길을 따라 수렴동 계곡을 오르다가 송준석(67회) 등반3대장을 만났다.

자기일행과 같이 천불동에서 공룡코스를 계획하였는데 무릎상태가 좋지않아 포기하고 백담사로 하산중이란다. 이어지는 소나무 숲속에서 뿜어나오는 깊은 솔향내와 시원한 계곡바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산행의 묘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산골 다람쥐들이 낮선 이방인을 피하지도 않고 발에 부딪힐 정도로 가볍게 따라온다. 얼마나 많은 등산객과 참배객들이 이길을 다녔으면 이리할까? 인간과 산골동물의 동화인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풍광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여태껏 감사하게 살며 이렇듯 건강까지 주셔서 참배를 하게되어 남은 여생은 선행으로 살아야겠다며 불심으로 봉정암을 오르는 타지의 두 보살님이 나누시는 덕담과 담소를 들으며 어느덧 영시암을 지나 수렴동 대피소에 설치된 나무식탁에서 선후배님과 함께 중식을 비우고 선배님들께서 주신 냉동수박조각과 간이 아이스박스에 담겨진 청포도알로 산행의 피로와 갈증을 날려보낸다.

여기서 곧장 능선을 타고 오르면 설악산에서 가장 험준한 용이 장성코스이고 좌측계곡으로 오르면 내설악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태고의 원시림을 잘 간직하고 인공적인 구조물 설치가 거의없는 가야동 계곡으로 접어든다.

구곡담 계곡의 굽이굽이 돌아 꿈틀대는 크고 작은 폭포들, 수정같은 계곡물, 비취색의 수많은 암과소, 계곡에서 하늘까지 치솟은 수많은 암봉들, 바위틈에 자생하여 뿌리 내린 각양각색의 소나무

들, 이끼군, 이름모를 야생화들이 조화를 이루어 여러쪽의 아름다운 산수화를 보는듯하다. 지난해 수해로 유실되어 임시로 설치된 소나무다리를 아슬히 건너서니 저멀리 푸른하늘 아래 봉정암이 자리잡은 암봉과 설악 소청능선이 선명히 나타난다.

가는 길 간간이 수해복구 임시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고, 새로이 산행길 정비 위해 신설구간과 보수구간이 늘려 있었다. 좌우로 나누어 떨어지는 쌍룡폭포와 그아래 물보라를 머금은 비취빛 담소를 지나고 계곡사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이를 더해가는 정상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그리하여 봉정암에 다달았다.

▲ 부처님의 품속에서(적멸보궁 봉정암 산사의 밤)

봉정암은 5대 적멸보궁의 한곳으로 부처님의 뇌 진신사리를 모신 불교의 성지여서 전국 각지의 참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참배객 이외의 등산객들의 숙식이 제한되어 있는 산사이다.

불자이고 세월이 흐를수록 모든 면에서 더욱 닳아가는 두분. 김성수 동기 내외분의 해맑은 웃음과 순박한 모습, 그리고 산사의 유래에 귀를 기울이며 꿀맛같은 저녁식사를 감사히 하고 샤워후 취침준비를 하였다. 산사 수용 참배객은 최대 450명인데 이날 850명이 참배해 우리들은 잠자리 확보를 위해 모두들 잔뜩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2000명이

참배하면은 쪼그려자고 4000명이면 서서 잔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난다. 처마가 있는 모든 곳은 한치의 공간도 없이 잠자리가 펼쳐 있었다.

새벽 4시경 철야 예불소리를 들으며 사리석탑을 참배키 위해 천근만근이나 된 몸을 겨우 일으켰다.

희미한 가로등이 켜진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자 어둠속에서 확트인 시야가 느껴진다. 밤하늘에 선명하게 펼쳐진 수많은 크고 작은별들. 지나온 온갖 상념들, 사리탑을 보며 한밤중에 잠도 자지않고 참배하는 신도들, 참배객들의 소망을 담은 염원의 촛불은 밤새 타오르며 새벽녘이 서서히 밝아 온다.

넓고 크나큰 우주 대자연속의 나의 존재란 영겁의 시간속에 스쳐가는 한점일 뿐임을 느낄때 머리속이 일순간 텅 비어갔다. 이 웅장한 장관을 보게끔 밤새 피곤한 나를 일으켜 이곳까지 오게해준 나의 마음속의 산에게 진정 감사할 따름이다.

<다음호 계속>

글 · 이승엽(61회 · 등반2대장)



SHINHOO
주식회사신후

조경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엔지니어링(조경설계)

대표이사

박 중 후 (67회)

구미사무실: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814-1 상가내

대구사무실:대구 달서구 본동 1135-3(현대B/D 505)

TEL : (054)458-6106 | (053)526-9092

FAX : (054)458-6105 | (053)527-9092

Mobile : 011-539-0131 E-mail : shinhoo7@chol.com

내연산에서 정기산행과 동해에서의 멋진 단합의 시간!

장마도 끝났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8월은 매일 반복되는 장대비에 정기산행을 어찌 잘 치를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지난 7월 지리산 반야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폭우로 인해 당일 버스 1대 정원에 채 못 미치는 인원만 참석했던 터라 오늘 버스 2대의 참석인원이 어찌나 반갑던지?! 사실 오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산행을 하겠지만 해수욕장에서의 이벤트도 겸한다고 공지해둔 터라 어쩐지 그냥 놀러 간다는 그런 기분마저도 든다.

오늘의 산행 목적지인 영덕 내연산 보경사에 도착하기 전 먼저 화진해수욕장으로 진입하여 차에 실린 각종 먹을거리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우리가 차지하기로 되어 있던 술발은 피서객들의 텐트로 가득차 있었다. 벌써 2주전에 현지 답사차 방문했을때 송라부면장과 번영회장의 협조를 받아 이미 확보키로 되어 있었던 자리였는데...

회원들을 실은 버스는 다시 보경사로 향하고 자리 확보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이미 쓸만한 위치는 한군데도 없었다. 그 와중에 다행히도 황성길(51회) 직전회장님의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는데, 약 5분 거리에 개인 사유지 해변이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이동키로 결정하고 회원들을 내린 1호차를 이용하여 집을 옮겨 싣고 또다시 대규모 이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산행은 보경사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대부분의 회원들이 짧은코스(A코스)를 선택하였는데 계곡을 따라 올라 은폭포까지 오르는 코스였다. 하지만 긴 산행을 즐기하고자 하는 회원들도 있었는데, 긴코스(B코스)를 선택한 회원들은 보경사를 출발하여 문수암과 삼지봉을 거쳐 은폭포로 하산하는 코스였다.

A코스 회원들은 점심식사도 거른채 오

후 1시에 보경사 주차장에 집합하여 해변으로 이동하였는데 미리 준비해둔 시원한 수박 화채와 1차 초벌구이를 해둔 왕갈비로 늦은 점심을 즐겼다.

특히 이번에 캔맥주와 소주등 술도 충분히 준비해둔 터라, 동기들간에 부족한 없이 단합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런데 B코스 회원들은 당초 3시에 보경사 주차장에 집합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3시 이전에 도착한 선두그룹에 비해 후미그룹은 4시30분이나 되어서야 도착하였다.

B코스의 회원들까지 해변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한층 UP되어 동기 선배간에 술잔들이 오고가며 그간 못한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도 하였는데,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이리저리 비를 피하다 보니 잠시 분위기가 흐트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나기도 이내 잦아들었고 하산주 자리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이번에도 뜨거운 숯불 옆에서 연신 왕갈비를 구워 접시에 담아내기 바빴던 이종열(55회) 회원을 비롯한 63회, 71회 몇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수선한 와중에 수고의 인사도 드리지 못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린다.

하산주를 빌미삼아 시작한 회식 자리는 거의 3시간이 넘게 진행되었고 먹을거리도 어느덧 떨어진 오후 5시쯤 선발대로 2호차가 귀가를 위해 먼저 출발하였고, 1호차는 좀 더 즐기다가 약 1시간 후에 출발하였다. 다행히 작년과 달리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아 편안히 귀가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석한 모든 선,후배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정기산행에 많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여러 개인 및 기수의 찬조로 이루어진 행사이다. 찬조하신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51회 산우회-10만원
▷김시우(52회) 회장-캔맥주 10상자
▷60회 동기회-20만원
▷유진(61회) 부회장-10만원
▷김성수(61회) 부회장-10만원
▷63회 산우회-10만원
▷65회 산우회-20만원
▷69회 산우회-7만원
▷김우철(70회) 회원-30만원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9회 : 서정원 부부 ▷48회 : 류청웅
▷50회 : 김덕수 부부 ▷51회 : 박동고 부부, 양정환, 허종철 부부, 이동희, 한민창 부부, 권영호 부부, 박재봉, 김명숙 ▷52회 : 김시우, 정하룡, 김기선 부부, 서정환 부

부, 김재태, 김신웅 ▷55회 : 이종열, 정인재 부부 ▷58회 : 조용호 부부 ▷60회 : 김영종, 김영호, 박영태 부부, 백기홍, 서해동, 이정우 부부, 정익표 부부, 주이광, 최명호, 최상득, 권오인 ▷61회 : 유진 부부, 박충호, 김성수, 석재호, 김홍 ▷62회 : 방인철 ▷63회 : 김재룡 부부, 이탁, 문종만, 최내영, 이진호, 이세탁, 김형국, 이종원, 김갑점, 이상옥, 고수환 부부, 장종국 부부, 구영식 ▷67회 : 송준석 ▷69회 : 김도균, 우종식, 안재갑, 반용석 외4명 ▷70회 : 조현영 부부, 조준현, 신대수 ▷71회 : 박범준, 석준수, ▷황덕문 (총 83명, 자녀제외)

글 · 신대수(70회 · 총무)

집행부 소식

❖ 8월 18일~19일 1박2일로 차기산행지 답사를 48회 류청웅 대장, 변학준, 52회 김시우 회장, 서정환 부회장, 김재태, 61회 김성수 부회장이 다녀왔다.

❖ 8월 21일 편집회의 겸 차기 산행 준비모임을 가졌다.

기별 동정

◆ 재경총동창산우회

8월 19일 제132차 정기산행을 강원도

홍천 팔봉산 계곡에서 23명의 회원이 산행을 한후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로 한여름의 폭염을 달랬다.



◆ 제51회

8월 26일 응봉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 제54회

8월 19일 밀양 구만산으로 14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55회

8월 12일 정도군 문복산으로 47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한후 뒷풀이로 시내 노다지 막혔집에서 보신탕, 대구탕, 미주구리회로 하산주를 대신하였다.

◆ 제63회

8월 26일 폭염관계로 불로동 부근 산에서 짧은 산행을 한후 인근 식당에서 뭍보신을 위한 뒷풀이를 하였다.

◆ 제65회

8월 19일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영

택(56회) 동문의 안내로 상주 도장산을 산행한 후 계곡에서 하산주를 하며 시원한 하루를 보냈다.

◆ 제67회

8월 12일 제39차 산행을 상주 문장대에서 8명의 회원이 산행 하였다.

◆ 제70회

8월 17일 용지봉에서 7명의 회원이 야간산행을 하였다.

◆ 제71회

8월 10일 앞산에서 5명의 회원이 야간산행을 하였다.

등산장비 전문점-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 중 앙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36번지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